

5·18 전투기 출격대기·헬기 기총소사 조사 착수

문재인 대통령, 송영무 국방장관에 특별조사 지시
국방부 “특별조사단 구성…5월 단체 참여 가능”
기무사 자료 공개 등 5·18 진상 규명 속도 붙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빌딩(옛 광주일보 사옥)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5·18의 실제적 진실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에 광주를 향한 출

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또 당시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사건 등 두 건과 관련한 특별조사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를 이용해 전일빌딩에 있던 시민군을 향해 무차별 기총소사를 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국립과학수

사연구원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상당수의 탄흔이 발견됐다고 확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3월 20일 전일빌딩을 직접 찾아 탄흔을 살펴보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간 ‘광주에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던 군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실제적 진실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문상군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구성, 빠른 시일 내에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별조사단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에서 참여를 요청한다면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당시 작전·상황일지 등 군 관련 기록들에 대한 비밀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0년 5·18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의 실제 규명, 기무사(당시 보안사)의 5·18 관련 자료 공개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5·18 진상조사 위원회’가 범적인 체계위에서 출범하려면 국회 본회의 통과 등으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행정명령 등을 통한 정부 차원의 자체적 진상조사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정부와 청와대에서 5·18 진상규명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대통령은 (5·18에 대한) 진상규명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조율해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지성호우 지속 9월말 늦더위 온다

올 가을 광주·전남지역은 더위가 잠시 주춤하다가 9월 말부터는 낮 기온이 높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3일 ‘3개월 전망’을 발표하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올해 가을은 일교차가 크고 낮 동안 일사로 인한 무더위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9월에는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낮과 밤의 기온 편차가 커지고,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9월 평균기온은 평년(1981~2010년 평균) 21.8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10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지만,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을 받아 비가 오는 때가 있고 월 평균기온은 평년(16.1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보했다.

11월에도 10월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일시적으로 대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떨어지는 때가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11월 평균기온은 평년(9.6도)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또 9월과 10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1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고 겨울까지는 적은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앞으로 광주·전남 지역에는 중국과 홍콩에 있는 고온다습한 열대성저기압이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한반도에 합류하면서 대기불안정을 유발해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달 말에는 습하지 않고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전두환·노태우를 구속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여부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한 2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 연내 결정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업 적정성 검토 거의 끝”
무안공항 경유 갈등 마무리…내년 실시설계 착수

무안공항 경유 노선을 결정하지 못해 오랜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위한 노선 결정이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향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여수)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6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같이 밝혔다고 23일 전했다.

주 의원은 이날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예산 미집행을 지적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만큼 빨리 결정해달라고 김 장관에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 문제는 저도 엄청 많이 들었고, 저도 주장하고 있다”면서 “지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에 있

는데 거의 끝나는 만큼 올 하반기 안에 어떻게든 간에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노선을 결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올해 안에 노선을 결정하고 내년부터는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사업은 오는 2020년 완공 계획이었지만, 전남도와 기획재정부가 무안국제공항 경유 문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노선 경유 등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8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지만, 기재부가 비용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300억원만 집행되고 500억원이 불용됐다.

기재부는 또 지난해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무안공항을 경유한 광주~목포 간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실상 국토부가 이미 실시한 타당성 조사를 재검토하기로 해 사업 지연이 우려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현 정부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호남고속철은 2006년 기본계획 고시에서 2017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2015년 9월 고시로 광주송정~나주 고막 구간은 2018년까지, 나주고막원~목포 구간은 노선 확정 후 착공으로 변경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타당성 조사를 통해 2조4731억원을 들여 나주를 포함한 77.6km(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 기존선 33.7km, 신설 43.9km)를 설치하는 안을 기재부에 제출했으나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기재부는 광주송정~목포 기존선(66.8km)을 고속화하고, 무안공항에는 16.6km의 지선을 신설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 前 민노당 대표

민주노총 출신…첫 노동계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65·사진)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위촉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위원장은 노사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고 균형감·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로서 새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실현에 기여하고 한국형 대화기구를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경남 함양 출신의 문 선임 위원장은 진주고과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과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노사정위원장에 노동계 인사가 위촉된 적은 있지만 민주노총 간부 출신이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장관급인 노사정위원장도 친 노동계 인사가 발탁되면서 노동계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8월 25일 금요일,
페라가모 신세계 광주점이 새롭게 오픈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32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1층 062-360-1886

Salvatore Ferragamo